

월/요/광/장

하동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9개월이 지나 가고 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지방의 입장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새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구상이다.

한편쯤 정책 추진상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열린 마음으로 살펴볼아야 할 것이다.

광역경제권 구상의 재설계

간, 광역경제권 내부 시·도간 갈등과 기존 계획이나 정책과의 상충이다. 광역권 선 도산업을 둘러싸고 광역경제권 간 반란이 예상된다.

하는 과정이 되고 있다. 이런 여러 문제점을 대승적으로 해결하고, 광역경제권 정책 추진이 갈등의 장이 아닌 협력의 장이 되어 지역발전이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정책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관련 지원 시책이 현실감 있게 가시화되면 지역 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동 협력사업만 우선 추진함으로써 광역경제권 내 시·도간 자율적 협력을 유도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3가지 정책 기초가 광역경제권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반영된다면 광역경제권 간, 광역경제권 내부 시·도간 갈등의 소지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우리 사회는 계층간·산업간·지역간 너무 많은 갈등의 씨앗을 안고 있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얼어붙은 지방경제 회생대책 시급하다

한국은행의 최근 경제동향 조사 결과, 지방이 수도권보다 심각한 경기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물가 상승폭은 매우 가파르다. 3분기 지방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9%로 전국 평균 5.5%를 훨씬 상회했다.

지방의 경기 하락은 전방위적이다. 백화점과 대형 마트 등의 판매액은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금융위기가 실물경기 침체로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경기는 이미 '한겨울'에 접어들어 추위가 더 깊어지고 있다.

제조업 생산도 올 1분기까지 두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해왔으나 2분기부터 둔화세로 돌아섰다.

정부는 지방경기 활성화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경기 침체가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에서 대책이 늦으면 지방이 살아갈 길은 막막할 수밖에 없다.

국립공원 재조정 합리적 방안 모색해야

환경부가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에 착수했다. 연말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기준을 확정하고 2010년부터 실시한다고 한다.

집만 남아있는 무인도가 수도룩하다. 지정 당시 9만2천명이던 인구는 지난해까지 68%나 줄었다.

환경부는 최근 신안·구례·여수 주민 간담회에서 자연보전과 주민이익을 동시에 도모하는 국립공원 조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리산 등 다른 국립공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정은 비슷하다.

문제는 자연보전과 주민이익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가.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합리적인 이용보다는 보존에 더 무게를 뒀기 때문이다.

국립공원은 보존돼야 하지만 제대로 유지되려면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기고



안치환

동해안 바다물의 수온이 40년 전과 비교해 섭씨 1도 이상 상승하는 등 서식 환경이 급변하면서 대표 어종이었던 명태를 이제는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축복을 받은 세대일까? 추우면 난방시설, 더우면 냉방시설을 돌려 손 시럽지 않고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살아가고 온실효과로 지구가 달궂어가는 줄 알면서도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는다.

후세대에 원망 들지 않으려면

개발과정 폭우와 대형 태풍으로 인한 생명과 재산의 피해 규모도 점점 확대되고 있다.

무일 것이다. 그 책임을 다 하기 위해 자동차를 하루 아침에 버리고 걸어 다닐 수도 없고, 한 여름에 사무실의 냉방시설 가동을 중단한 채 쪼뚫터위 속에서 일을 볼 수도 없을 것이다.

19세기 산업화시대에 시추가 시작된 석유는 인간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

광주시는 '푸른 도시 1등 광주'를 만들기 위해 지난 4월 환경부와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고, 7월은 전국 최초로 탄소은행제도를 도입해 2만세대 가까이 참여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지구를 보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삶의 일부가 된 석유라는 자원이 무한하지 않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시민들이 탄소은행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후세대들로부터 조금이나마 원망을 덜 듣는 길이 될 것이다.

산불 위험 확산... 추수 후 불지르기 삼가야

연일 계속되는 건조한 기후로 인해 화재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산불이 발생한다. 이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추수 후 불지르기를 법적으로 규제했으면 한다.

산불에 의한 숲의 기능 상실은 엄청난 피해를 수반하므로 요즘 같이 건조한 날씨에는 산에 들어가는 것조차 조심해야 한다.

만약 산불이 발생하면 즉시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119에 신고해 조기에 산불을 진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고



류찬수

가을철 나들이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하나 있다.

동네별 날씨를 어느 시간에, 얼마 만큼과 같이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동네예보는 말 그대로 동네에 관한 예보이다. 전국을 5×5km 간격의 격자로 나누어 하루에 8회, 3시간마다 향후 48시간의 상세한 예보를 전국의 읍·면·동을 최소단위로 하여 지역별로 제공하여 준다.

이번 주말 무등산으로 산행을 계획하거나 지금으로부터 12시간 후 자신이 관심 있는 동네의 날씨를 알고 싶다면 동네예보를 먼저 확인하고 준비하면 된다.

동네마다 날씨 알 수 있다

성, 도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동안 기상예보는 날씨 예보의 지역별 시간별 차이를 많은 불편을 겪어왔던 것도 사실이다.

동네예보는 이미 미국, 일본 등 기상 선진국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새로운 예보시스템으로 첨단 IT기술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이로 동네별 날씨를 제공한다. 그 동안 기상예보는 날씨 예보의 지역별 시간별 차이를 많은 불편을 겪어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의 기상예보가 '일방적인 통보형'이었다면 동네예보는 국민들과의 '대화형'이다.

이 소설의 구도는 최인훈의 '광장'을 연상시킨다.

길거리 불법 옥외 광고물 안전 위험... 철거 단속을

학원에 갔던 아이가 울면서 들어왔다. 어쩔 일인지 몰랐더니 손으로 운동화를 가리켰다.

길거리에 내놓는 노래방, 찜질방, 음식점 등 수많은 업소들의 안내간판은 거의 다 불법이다.

아이의 학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인도에 나와 있던 찜질방의 안내간판 아래부분의 양철판에 긁혔다고 말했다.

비가 올 때는 전선 가타이 들어나 갑전 위험도 있고, 바람이 심하게 불 땀 흘려서 사람을 칠 수도 있어 항상 위험한 물건이다.

순간 화가 치밀었다. 당장 쫓아가 운동화 끈을 풀어내고 싶어졌지만 다른데서 쫓아오고 와서 덮어 씌운다고 발뺌 할게 뻔해 포기하고 꼭꼭 참고 말았다.

도시미판도 해치지만 각종 안전사고를 유발하니 철저히 단속해주시기를 바란다.

無等鼓

중국 출신 미국 작가 하진(哈金)의 영문소설 '전쟁 쓰레기'(War Trash)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중국군 포로 얘기를 다루고 있다.

파리의 택시운전사'로 유명한 황세화의 경우도 비슷하다.

난민



이 소설의 구도는 최인훈의 '광장'을 연상시킨다.

은 광국의 설움 속에 타국 땅에 세워졌다.

시대와 불화한 사람들은 자신의 땅에서 배척당함을 감수해야 했다.

전 세계를 떠도는 난민은 약 6천700만 명.

최근 대통령이 중국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중국인들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았다.

최근 대통령이 중국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중국인들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았다.

Table with 2 columns: 광주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publication details.